

아브라함 마슬로우(Abraham H. Maslow)의 인간주의 심리학적 인간학

A fundamental anthropological study on A.H.
Maslow's psychological humanism

조성국*

목 차

1. 서 론
2. 생물학적 본성
3. 인간의 필요(needs)의 위계
4. 자아실현
5. 마슬로우의 인간주의심리학적
인간학의 철학적 인간학적 특징

1. 서 론

아브라함 마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인간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중 한사람으로서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의 주요한 두 그룹인 제3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 인간주의 심리학)과 제4의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 초개인 심리학)의 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Frager, 1987 : Preface 33~34 ; Cox, 1987 : 251). 마슬로우와 그 동료들은 1962년 인간주의심리학회(Association for Humanistic Psychology)를 창립하였고, 마슬로우의 심리학적 인간이론을 근간으로 같은 해에 최초의 인간성장연구소인 에살렌 연구소(Esalen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마슬로우는 또한 “지하실(프로이드의 무의식)로부터 다향방(인간의

* 전임강사(기독교교육과), 교육철학전공

고등한 본성)까지"(Frager, 1987 : Preface 35~36) 인간의 전체의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로 심리학의 관심영역을 확장시킨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마슬로우의 인간에 대한 이론은 심리학적으로 정상적이며 건강한 사람 곧 자아실현한 사람(self-actualizing people)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심리학 외에도 교육학, 경영학, 보건학 그리고 여러 사회과학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콕스(Cox, 1987 : 264)는 마슬로우의 심리학이 1960년대 이후 미국인의 삶과 문화의 다양한 차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고 칭송하였다.

마슬로우는 인간주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가치있게 간주되고 있는 개념인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주된 대변자이다(Nash, 1980 : 8). 그래서 (신)인간주의(Humanistic or Neo-humanistic) 교육운동은 주로 마슬로우의 인간주의 심리학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Bosak, 1977 : 367). 마슬로우가 주장하였던 인간학적 철학은 "(신)인간주의 교육가들의 상징적 깃발"(Cox, 1987 : 253~254)이 되었으며, 특히 그의 동기이론,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 자아실현의 철학은 (신)인간주의 교육의 기초이자 목표가 되었다.

콕스(Cox, 1987 : 246)에 따르면 마슬로우는 6권의 저술과 140여편의 논문을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마슬로우의 심리학적 인간학 이해를 위해 그의 문헌들 중에서 심리학적 인간학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세권의 저술 곧 *Toward psychology of being*(1962a), *Motivation and personality*(1987),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1971)에 더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심리학적 인간학을 철학적 인간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2. 생물학적 본성

마슬로우(1968a : Preface 3 ; 1968b : 685)는 종종 행동주의 심리학파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적 심리학파에 인간주의 심리학을 대립시키면서 인간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슬로우는 종종 인간의 본성은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Maslow, 1968a : 687).

마슬로우가 주장하는 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마슬로우는 인간의 내적 본성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부패하였다거나 악하다고 하는 신념에 대하여 단호하게 저항한다. 많은 경우에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신뢰할만하고 바람직스러운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다. 설사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선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조금 주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도덕적 판단 이전의 상태라는 생각 이상으로 후퇴하려하지 않는다(Maslow, 1987 : Preface 18 ; 1987 : 52, 82~85 ; 1968a : 3~4).

인간의 파괴성이나 호전성과 같은 나쁜 행동도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위협이나 실망에 대하여 대응하거나 방어하는 태도로 인정된다(Maslow, 1987 : 82~91). 그리고 일반적으로 악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들 조차도 무지나 유아적인 편견이나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Maslow, 1968a : 195).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심리

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과 타인에게 선하고 정당한 것을 선택하고 열망한다는 당연한 결론으로 발전한다(Maslow, 1968a : 159, 168~169).

마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그 자체를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성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Maslow, 1962 : 39 ; 1987 : 60). 인간이 살아가는데 요청받는 가치나 규칙도 밖에서 부여되기보다는 내면적인 본성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창의성과 예술과 사랑과 유머와 놀이의 원천임과 동시에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리지식의 원천이기도 하다(Maslow, 1968a : 182~183).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스스로를 치료하고 부적응을 조정하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Maslow, 1987 : 103 ; 1968a : 38). 이러한 신념에서 마슬로우(1968a : 165)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인정되어온, 인간이 인간 외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그의 본성 안에 이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성장(성숙)과 인간다움의 원천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 안에 있다고 간주된다. 마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은 인간 유기체를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충분한 발달에 이르도록 움직여가는 적극적인 성장의 경향성 혹은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적극적인 성장의 경향성은 심리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의지력, 성장의 충동력, 자아실현을 향한 압력, 자아정체와 자율성에 대한 요구, 탁월성에 대한 열망 등을 함축하고 있다(Maslow, 1987 : Preface 20 ; 1968a : 155).

심리학의 다른 학파와 비교하여서 마슬로우가 특별하게 강조하려는 것은 인간본성의 고등 차원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행동주의 심리학파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파가 인간본능의 고등 차원을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Maslow, 1968b : 686~687 ; 1987 : Preface 17). 인간본성의 고등 차원이란 자아실현한 사람들이나 인간의 절정경험(peak-experiences)에서 발견되는 바, 인간의 높은 차원의 필요들과, 신비적인 측면, 미적인 측면, 환희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초월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과 가치영역에 속하고 측면들을 의미한다(Maslow, 1971 : 325, 349). 마슬로우는 종종 이러한 인간 본성의 고등 차원을 인간본성의 내면에 있는 "신과도 같은(godlike)" 가능성이라고 칭한다(Maslow, 1971 : 35, 275 ; 1968a : 92, 174).

그러나 마슬로우는 인간의 내적 본성은 하등 동물들의 본능과 비교할 때 항상 강하고 압도적이고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하등 동물의 본성에 비교할 때 약하고 민감하고 세심하고 은둔적이고 애매하므로 종종 의문과 불확실성과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내면적 본성은 습관이나 문화적 압력이나 학습이나 타인의 선호도에 의해 쉽게 압도당하거나 억압되기도 한다(Maslow, 1968a : 4 ; 1987 : 117). 그러나 그 내면적 본성의 요구가 비록 부정되거나 억압되기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고 단지 무의식 안에서 남아 약하게 지속된다(Maslow, 1968a : 4, 192). 이처럼 유약한 내면적 본성을 마슬로우는 진화론적 용어로 "잔류적 본능(instinct-remnants)"이라고 칭한다(Maslow, 1962 : 38).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은 종종 인간 유기체의 본수, 핵, 내적인 자아, 실질적인 자아, 인간의 본유적인 설계, 무의식, 일차적 작용, 인간본능, 인간존재의 뿌리, 동물적 본성이라고 칭해진다(Maslow, 1968a : 4, 192 ; 1968b : 687, 691 ; 1971 : 89, 114, 380 ; 197 : 60, 117). 마슬로우는 내면적 본성에 본능적 필요, 선호감, 충동성, 능력, 재능, 생리학적인 균형감각, 태아기의 상흔, 신생아기의 의상 등을 포함시킨다(Maslow, 1962 : 35).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개별적으로는 생물학적 개체로서, 집단적으로는 진화에 의한 종

(species-wide)으로서 생물학적 본성으로 특징지워진다. 마슬로우(1971: 11, 349)는 종의 진화와 개체발생에 있어서 진화론적 설명을 지지한다. 그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종의 진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여 한다. 또한 개체발생의 차원에서도 진화적 관점에서 필요의 위계적 발달(hierarchical development)과 자아실현의 과정을 기술하였다(Maslow, 1987: 10, 57, 61; 1971: 332, 351).

인간의 본성은 해부학적 구조, 생리적 기능, 기본적 필요, 본능적 열망, 심리적 능력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진화론적 가정에 따라 생물학적 측면에 그 뿐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지워진 내면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 내면적 본성은 생물학적 본질이라고 칭해진다(Maslow, 1968b: 688). 인간본성의 고등한 차원조차도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분일 뿐이다. 인간의 높은 차원의 필요(metaneeds)도 음식에 대한 필요만큼이나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로 간주된다(Maslow, 1987: 59). 인간존재의 높은 가치들인 영적 가치, 종교적 가치, 철학적 가치도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의 여러 측면들일 뿐이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의 절정경험과 내적인 양심, 그리고 죄책감도 궁극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차원에 뿐리를 내리고 있다(Maslow, 1971: 333~334, 338). 자아실현도 역시 생물학적인 본성에 기초해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자아실현은 생물학적 운명에 부응하여 진행되어야 한다(Maslow, 1968a: Preface 6).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에 대한 탐구의 심리학은 마슬로우의 말로 표현할 때, “주체적이고 내성적인(introspective) 인간주의적 생물학”인 셈이다(Maslow, 1971: 186~187, 330; 1968a: 185).

마슬로우는 자신의 심리학적 접근을 “통전적이고 역동적인 심리학”(Maslow, 1962: 34) 혹은 “통전적 접근”(Maslow, 1987: 211)이라고 명명한다. 마슬로우에게 있어서 통전성(holism, 혹은 전인성)은 우주와 사회-문화와 인간과 심리학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조직된 전인이라는 주장은 마슬로우의 일차적 가설이다. 그는 인간의 심리적 차원으로 간주되는 인식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과 의지적 측면들은 서로 분리되거나 이원화 혹은 삼원화되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연관되어 있고, 서로 중첩되어 있고, 서로 공동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Maslow, 1987: 25; 1971: 210). 본능적 필요와 인간의 사고작용은 언제나 “공동으로 작용하고”(Maslow, 1987: 51) 있고, 인간의 높은 가치에 속하는 차원들도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낮은 차원의 본성과 동일한 생물학적 연장선 상에서 위계적으로(hierarchically) 통합되어 있다(Maslow, 1971: 324). 그러므로 인간 유기체는 보통 하나의 통합된 전인으로 행동하고 있고,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반응조차 인간 유기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 유기체의 개별 행위는 통전적인 전체로서의 퍼스널리티의 한 표현으로 이해된다(Maslow, 1987: 11).

3. 인간의 필요(needs)의 위계

마슬로우(1987: 15~23; 1968a: 199~200)가 열거하고 있는 인간의 다섯가지 기본적인 필요(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리학적인 필요 : 미네랄, 물, 소금, 단백질, 칼슘, 산소 등의 섭취에 대한 필요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이다.
- 2) 안전(안정)의 필요 : 안전, 안정, 의존감, 보호받음, 공포와 근심과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구조와 법칙과 명확한 한계에 대한 필요, 힘이 있는 보호자의 필요등의 내면적 필요이다.

- 3) 소속과 사랑의 필요 : 가족, 공동체, 친지, 동년배, 친구집단 등에 대한 소속감, 사랑, 애착이 이 필요에 속한다.
- 4) 존중감의 필요 : 두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힘, 성취, 적합성, 능력, 실력, 세상을 직면하는데 있어서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등이고 두번째의 부류는 명예, 지위, 명성과 영예, 지배력, 인정받음, 주목받음,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 품위, 좋은 평가 등의 필요이다.
- 5) 자아성취의 필요 :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완전한 발현, 자아의 모든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필요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의 기본적인 필요에 덧붙여서 마슬로우는 또 두가지의 인식적 필요, 곧 지식과 이해의 필요와 미적인 인식의 필요(Maslow, 1987: 23~26; 1968a: 63~66)와 초월적 필요(metaneeds)도 제시한다(Maslow, 1987: 66, 82; 1971: 330). 초월적 필요는 자아실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월성, 진리, 미, 합법성, 단순성과 같은 높은 차원의 동기들을 의미한다.

마슬로우의 동기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필요(욕구)는 하나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적 본성 안에서 상호우월성의 원리를 기초로 꽤 분명한 위계를 이루면서 조직되어 있다. 낮은 차원의 본성들이 높은 차원의 본성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우세하다. 그래서 생리학적 필요는 안전의 필요보다 더 강하고, 안전의 필요는 자아 실현의 필요보다 더 강하다. 모든 필요들이 인간의 본성 내에서 하나의 통합된 위계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높은 차원의 필요는 낮은 차원의 필요에 의존해 있고, 낮은 차원의 필요들의 기초위에서라야 높은 차원의 필요가 발달하게 된다(Maslow, 1968a: 172~173).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들이 서로 상호중첩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필요를 다른 필요들로부터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Maslow, 1987: 8).

그러나 높은 차원의 필요는 개체 진화적 측면에서 더 이후에 발달하는 필요이므로 높은 차원의 필요에 대한 만족은 자아실현에 더욱 근접해 있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의 필요는 정신건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신병리적인 특징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높은 차원의 필요를 추구하고 그 필요들의 만족을 경험할 경우 더욱 바람직한 개인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깊은 차원의 행복감, 내면적 평정감, 내면적인 풍요로움과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다른 사회적인 결과들도 동반된다(Maslow, 1987: 57~58).

마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삶의 활동 전체를 통하여 어떤 것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존재 곧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열망하는 동물(a wanting animal)”(Maslow, 1987: 7)이다. 이미 충분히 만족된 필요는 더 이상 만족되어야 할 필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하나의 필요에 적절히 만족하게 되면 곧 다른 필요가 이전의 필요를 대체하여 등장하게 된다(Maslow, 1987: 18). 어떤 특정한 필요에 어느정도 만족하게 되면 그 필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필요의 위계에 있어서 그 다음의 위에 위치한 일련의 필요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여 인간의 퍼스널리티와 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다. 비록 높은 이상이나 높은 사회적 기준과 가치 등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예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Maslow, 1987: 27), 일반적으로 더 기본적이고 낮은 차원의 필요가 만족될 때 비로소 새로운 필요 곧 한단계 높은 필요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마슬로우의 가정이다. 그러므로 필요의 위계에 있어서 순서는 필요의 만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동하여 자아실현에 도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마슬로우에게 있어서 성장 혹은 성숙의 과정은 자아실현을 향하여 기본적인 필요(욕구)를 점진적으로

만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만족이 심리적인 건강과 긍정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지만, 이 말을 바꾸어보면 필요에 대한 좌절은 심리적인 질병과 결핍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슬로우(1987: 78, 81; 1971: 193)에 따르면 인간 유기체가 기본적인 필요나 자아실현을 포함한 초월적인 필요에 대한 만족을 방해받거나 좌절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정신병리적 혹은 초월적 의미의 병리적 현상이 생긴다. 마슬로우는 심리적 질병은 특별히 인생의 초기 몇년동안의 어린시절에 기본적 욕구(필요)의 만족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좌절경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고유한 욕구와 자아표현과 자신의 스타일대로 성장하려는 경향에 있어서의 좌절경험으로부터 초래된다(Maslow, 1962: 37; 1968a: 193 ~ 194). 그래서 마슬로우(1971: 379)는 신경증이란 특정한 필요에 대한 만족감의 부재 내지 결핍이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필요(욕구)에 대한 만족감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치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슬로우(1968a: 153)는 꾸준한 만족경험은 이전의 필요에 대한 만족의 결핍에서 야기된 심리적 질병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에 대하여 만족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심리적 질병의 증후군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자아실현

마슬로우는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와 막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의 인간성에게 매료된 이후 줄곧 소위 자아실현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자아실현한 사람들이란 높은 차원의 성숙과 정신적 건강과 자아성취 곧 인간 본성이 펼쳐갈 수 있는 최상의 고지에 도달한 사람들로서 자신의 내면적 자아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성과 경향성을 실현한 사람들이다(Maslow, 1968a: 71~72). 원리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실현할 수 있고 실제로 자아실현을 열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아실현은 좀처럼 현실화되지 못한다. 마슬로우는 성인 인구의 1퍼센트 미만의 사람들만 자아실현한 사람들이라고 추정한다. 또 자아실현은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므로 성숙의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자아실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Maslow, 1968a: 204). 자아실현이란 (신)인간주의 교육에 있어서 청년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궁극적인 목표일 뿐이기 때문이다(Maslow, 1971: 168~169, 181).

마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정의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아실현한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질내지 특성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려고 했다. 그가 기술한 자아실현의 특징들은 인식의 실재성, 수용성, 자발성, 문제중심성, 고독, 자율성, 신선한 미적 판단력, 절정경험, 인류애와 인류에의 소속감, 겸양과 존경심, 인간관계에서의 친밀성, 문화적 예속에 대한 저항감,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 가치, 이원론의 극복 등이다(Maslow, 1987: 128). 위에 언급한 특징들은 대략 다섯가지의 중요한 특징들로 구분되어 상술될 수 있다.

첫째, “자아실현은 인간 유기체에 이미 존재하는 본성의 내면적인 성장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기체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내면적인 성장이다”(Maslow, 1987: 66). 따라서 마슬로우에 따르면 자아실현의 첫번째 특징은 자신의 내면적 본성을 완전히 수용하고 그 내면적 가능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충분히 개발시킨 상태를 의미한다.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내면적 본성과 그 본성이 지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Maslow, 1968a: 26).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적인 본성에 깊이 잠길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본성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만족의 과정을 활용하고, 이것을 가치롭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의 내면적인 충동성의 음성과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고와 행위를 주관하는 결정인자는 바로 인간 본성의 내면적인 법칙성이라고 할 수 있다(Maslow, 1968a: 35).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적 본성이 그들 자신을 결정지울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그 결과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아실현이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잠재력의 충분한 개발이라고 기술될 수 있다.

둘째,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신병리들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의 거부, 좌절 혹은 뒤틀림을 통하여 야기되기 때문이다. (Maslow, 1987: 115).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이미 본성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적절하게 만족해온 사람들이다. 마슬로우의 동기이론에 따르면 자아실현이란 선행하는 모든 기본적인 필요가 만족된 이후에야 도달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필요이다. 따라서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과거의, 본성의 모든 필요에 대한 만족의 과정에서 직면한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게다가 기본적 필요에 대한 만족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 필요의 적절한 만족의 경험들은 “치료약”(Maslow, 1987: 97)과 같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이전의 좌절이나 결핍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치료하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늘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인간은 특정한 기본적 필요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한 이후에는 그 필요의 만족을 위한 강렬한 요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이미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기본적 필요의 일시적 불만족의 상태에서 자아실현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상태를 더 잘 견뎌낼 수 있다. 비록 자아실현한 사람들이 종종 갈등과 근심과 좌절과 슬픔과 내적 상처와 죄책감을 경험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거나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Maslow, 1962: 45; 1987: 31). 때때로 내면에서부터 적의감과 증오 혹은 공격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한 파괴적인 감정들은 불의에 대한 의분과 항거처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마슬로우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아실현은 정신병리적 문제 곧 신경증이나 다른 정신적 질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의 약화나 상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Maslow, 1968a: 197).

셋째,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잘 통합된 퍼스널리티를 드러낸다. 자아실현은 “자아와 이드(id)와 초자아와 자아 이상(ego-ideals)의 통합,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본성의 일차적 작용과 이차적 작용의 통합, 쾌락의 원리와 실재의 원리의 통합…본성의 모든 차원에서의 전체적이고도 진정한 통합”을 의미한다(Maslow, 1968a: 96). 마슬로우에 따르면 머리와 가슴의 이원론, 소망과 사실의 이원론, 이성(합리성)과 본능(비합리성)의 이원론 등 다양한 종류의 이원론들이 자아실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혼재되어 통합을 이룬다. 그래서 인식과 의욕은 통합되어 의욕을 지니고 있는 인식이 된다(Maslow, 1968a: 139).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이원론적 대립들, 예컨대 일과 놀이, 직업과 취미, 의무와 쾌락,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이기심과 이타심 등도 함께 융해되어 더 고상한 통합을 이룬다. 철학적인 많은 양극화현상들, 예컨대 생물학 대 문화, 본능적인 것 대 학습된 것, 주관적인 것 대 객관적인 것, 개별적인 것 대 보편적인 것 등의 양극화도 혼재되거나 초월된다(Maslow, 1962: 43; 1987: 55). 따라서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통합자들로서, 분리되고 대립된 것들을 통합시켜 통일체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Maslow, 1987: 162).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면적

본성의 모든 차원에서 더 온전한 통합을 이루면 이를수록 삶의 모든 양상들은 갈등없이 공동적으로 더 잘 작용하게 된다.

네번째, 창의성은 자아실현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마슬로우는 때때로 자아실현이란 곧 창의성이라고 간주한다. 물론 그는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보다는 자아실현의 퍼스널리티로서의 창의성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에 따르면 창의성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으로부터 나온다(Maslow, 1968a : 144).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면적 본성에 깊이 잠기도록 허용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마슬로우는 창의성을 위해서는 단지 논리적인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논리적인 방식의 인식이 종종 인간의 내면적 본성의 일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슬로우(1971 : 69~70, 94)는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모든 인식수단들을 동원하여 창의성의 원천인 자신의 내면적 본성에 접근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마슬로우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희망, 전통과 금기사항들과 규제들이 종종 창의성이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서부터 떠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주장한다(Maslow, 1971 : 62~66).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점차 사회화 혹은 문화화되면서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진단한다. 창의성이란 인간 본성의 내면적인 재능이 내면적으로 자동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 2의 순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자유분방함”(Maslow, 1968a : 197)이 창의성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대단히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문화화되는 것 혹은 규격화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고도의 개인성과 독특성과 사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마슬로우에 따르면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율적인 사람들로서 자기 자신의 내면적 본성의 타고난 설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초월성은 자아실현의 또 다른 특징이다. 마슬로우(1971 : 279)에 따르면 초월성은 “자신에게나 의미있는 중요한 타인에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자연과 우주에 대하여,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행동하고 (이 모두를) 서로 연관지우는 인간의식의 가장 높고도 포괄적이며 통전적인 차원”으로 정의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육체, 시간과 공간, 문화나 죽음, 고통, 기본적 필요, 프로이드적 의미의 초자아, 자신의 약점들, 이원론, 필요의 결핍영역(D-realm), 거부감, 두려움, 인간적 불완전성, 자신의 신조나 가치와 신념체계 등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신비적 경험, 타인과의 동체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 자아실현의 완전한 상태인 존재가치(B-value)와의 동일시, 도교적인 관조에서 얻게 되는 객체감,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여 신처럼 되어 완전한 자아실현에서 가능한 존재인식(B-cognition)의 영역에 살면서 전우주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초월성을 드러낸다(Maslow, 1971 : 269~279).

자아실현의 초월성은 종종 초월적 동기부여(metamotivation), 도교적 관조와 민감성으로 특징지워진다. 마슬로우(1971 : 35, 73)는 자아실현한 사람들의 초월성을 특별히 신비적이고 미적인 “절정경험(peak experiences)”과 연관시킨다. 절정경험은 자아실현의 절정에 도달한 일시적 순간의 경험으로 간주된다(Maslow, 1971 : 48). 마슬로우는 이 경험들이 황홀감과 강한 확신을 가져다주고, 그 경험의 당사자와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5. 마슬로우의 인간주의심리학적 인간학의 철학적 인간학적 특징

1) 자아 실현한 사람들은 자율적인 사람이다.

진화론적 근거에서 인간은 항상 내면적 본성의 기본적 필요에 대한 만족을 추구해가는 생물학적 존재 곧 모랄라는 부분을 충족하려고 열망하는 동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성격상 근본적으로 선하고 신뢰할만하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성장과 성숙을 향한 적극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자신을 치료하고 구원할 힘조차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창의성과 사랑과 진리, 그리고 인간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의 높은 차원에서 신과 같은 자질들조차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은 이러한 내면적 본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충분한 발달을 의미한다.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본성의 충동성에 일치하지 않는 전통이나 금기사항이나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히 자신의 내면적 본성의 경향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다.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본성의 내면적인 법에만 순종한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그들은 신과도 같은 초월적 인식과 경험, 곧 도교적 관조의 객체감, 존재가치와의 동체감, 절정경험에 도달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 본성으로 자충족한 존재이며 그 본성의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법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인 존재이다. 자신의 본성이 지닌 기본적 필요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자아실현이 인간의 인생과 성숙의 목표가 된다.

2) 생물학적인 내면적 본성이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 자아이다.

인간의 본수 혹은 중핵은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다. 생물학적 본성이 인간을 발달과 자아실현으로 인도한다. 생물학적 본성은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참으로 필요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은 심리적 부적응과 갈등에서부터 인간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 또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기본적 필요와 그 필요의 만족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동기화하고 지도한다. 인간은 그의 내면적 본성의 생물학적 운명에 부응하여야만 자아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 본성의 내적인 법칙이 인간의 전 생애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이란 곧 인간의 생물학적인 내적 본성에 속한 것이다.

3) 인간은 통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조직된 전인이다.

인간은 통합된 전인으로 간주되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간 본성의 모든 차원이 통합되어 공동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아실현한 사람들은 잘 통합된 퍼스널리티를 나타내보인다. 자아실현에 있어서 인간본성과 삶과 삶에 대한 관점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바의 이원론 내지 양극화 현상은 해체되어 통일된 단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아실현한 사람은 전형적으로 통합된 자로 일컬어진다. 인간은 그 자신의 내면적 본성의 제측면에서

더 잘 통합되면 될수록 그의 모든 양상들이 더 공동적으로 잘 작용하게 된다. 마슬로우에게 있어서 인간의 전인성은 여러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마슬로우가 열거하는 인간의 양성들은 생물학적 측면,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의욕적 측면, 사회적 측면, 미적 측면, 가치적 측면, 철학적 측면, 영적 혹은 종교적 측면들이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과 의욕적 측면은 심리적 기능으로 간주된다. 미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과 영적-종교적 측면은 인간 본성의 더 높은 차원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측면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모든 측면들은 동기이론에 따라 위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위계 안에서 측면들은 종종 서로 중첩되고 공동적으로 작용하므로 각각의 측면은 항상 통합된 전인으로서의 전체적 퍼스널리티의 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은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의 가장 높은 본성적 차원조차도 생물학적 본질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들도 낮은 생물학적 본성과 동일한 생물학적 연장선 상에서 위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자아실현은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기초지위진 본성의 발달이므로 결국 생물학적 운명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제 측면들의 위계에 있어서 낮은 측면들이 높은 측면들보다 더욱 우세하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적 측면은 생물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들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슬로우의 인간론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특징지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OSAK, B.W., A decade of radical educational trends : the 1960's, Arizona State University(Ph. D. dissertation.), 1977.
- BRAMMER, L.M., Self-actualization, (In Husen, T. & Postlethwaite, T.N.,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New York : Pergamon, 8 : 4503~4505, 1985.)
- BUGENTAL, J.F.T., Challenges of humanistic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1967.
- BUHLER, C. & ALLEN, M., Introduction to humanistic psychology, Belmont, Calif. : Wadsworth, 1972.
- BUSS, A.R., Humanistic psychology as liberal ideology : the socio-historical roots of Maslow theory of self-actualizati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3) : 43~55, 1979.
- COX, R., The rich harvest of Abraham Maslow, (In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1987, p.245~271.)
- CRONJE, C.P., Selfaktualisering en skoolstruktur volgens sekere onderwyshumaniste, PU vir CHO(Ed.D. thesis), 1989.
- FRAGER, R., The influence of Abraham Maslow, (In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1987, Preface p.33~41.)
- GELLER, L., The failure of self-actualization theory : a critique of Carl Rogers and Abraham Maslow,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2(2) : 56~73, 1982.
- GLOBE, F., The third force : the psychology of Abraham Maslow, New York : Grossman, 1970.
- HAMMES, J.A., Humanistic psychology :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 Grune & Stratton, 1971.
- JOURARD, S.M., Healthy personality :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tic psychology, New York : Macmillan, 1974.
- MASLOW, A.H., Some basic propositions of a growth and self-actualizing psychology, (In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Perceiving, behaving, becoming, Washington : ASCD, 1962, p.34~49.)
- MASLOW, A.H., A theory of metamotivation : a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lif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7 : 93~127, 1967.
- MASLOW, A.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Princeton : Van Nostrand, 1968a.
- MASLOW, A.H., Som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humanistic psycholog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4) : 685~696, 1968b.
- MASLOW, A.H.,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 The Viking Press, 1971.
- MASLOW, A.H., What is a Taoistic teacher ? (In Rubin L.J., ed., Facts and feelings in the classroom, London : Wark Lock, 1973, p.147~170.)
- MASLOW, A.H., The creative attitude, (In Avila, D., Combs, A.W. & Purkey, W.W., eds, The helping relationship sourcebook, 2nd ed., Boston : Ally and Bacon, 1977, p.226~239.)

-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1987.
- MASLOW, A.H. & MITTELMANN, B., *Principles of abnormal psychology : the dynamics of psychic illness*,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1.
- NASH, P., *Humanism and humanistic education in the eighties : the lessons of two decades*, *Journal of education* (Boston), 162(3) : 5~17, 1980.
- PHILLIPS, W.M., WATKINS, J.T. & NOLL, G., *Self-actualization, self-transcendence and personal philosoph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3(3) : 53~73, 1974.
- ROBERTS, T.B., ed., *Four psychologies applied to education*, New York : Wiley, 1975.
- SCHULTZ, D.P., *Growth psychology :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 Van Nostrand Reihold, 1977.
- SEVERIN, F.T., *Discovering man in psychology : a humanistic approach*, New York : McGraw-Hill, 1973.

高神大學校
論文集第23輯
1996 pp. 103~123

William Nicoll의 단기상담 모델에 관한 연구

류혜옥*

목 차

1. 서 론
2. 단기상담 Model의 이론적 배경 및 발달과정
3. Nicoll의 단기상담 모델의 특징
4. Nicoll의 단기상담 모델의 연구들
5. 논의 및 결론

1. 서 론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급격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가치혼란, 불안, 소외감, 무력감들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현대인을 위하여 상담분야에서는 관심이 증대되어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Vol 15 77~99, 1991*).

오랫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는 개인이 호소하는 문제의 원인을 인과론에 따라 개인의 과거와 내적역동에서 찾으려는 개인주의적 접근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Gurman & Kniskern, 1981*). 실질적으로 상담을 배우는 대학원생들은 인간행동, 문제발달, 정신치료등에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치료에서 기대되는 실질적인 치료행동에 대해 실제

* 전임강사(기독교교육과), 상담심리전공